

##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KAPTI) 표준화 연구

윤천성\*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 의학인 아유르베다 이론을 기반으로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 이론을 정립하고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표집을 분석하여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척도 타당성 연구(윤천성, 2017)’를 통해 개발된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를 표준화하기 위해 도사(유형)별 각 2문항을 추가하여 설계된 설문지를 전국적으로 2000부를 배부하여 유효 설문 1003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1003명을 대상으로 본 최종 척도인 45개 문항에 대해 206명을 대상으로 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카파형’이 493명(4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바타형’ 298명(29.7), ‘피타형’ 212명(21.1%) 순으로 나타났고 각 기본심리유형 척도 유형별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바타형’은 0.950 ‘피타형’은 0.926, ‘카파형’은 0.946으로 나타났다. 1003명을 대상으로 본 최종 척도인 45개 문항에 대해 206명을 대상으로 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바타형’은 0.886 ‘피타형’은 0.870, ‘카파형’은 0.862 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통해 표준화된 도구 개발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 KAPTI, 표준화

1)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E-mail: staryoun@svu.ac.kr)  
투고일: 2018년 5월 1일, 수정일: 2018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 2018년 5월 25일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은 신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의 건강과 균형일 것이다.

개인의 삶의 질은 성별, 직업, 학력, 소득 등과 같은 외적요인과 성격,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내적요인에 영향을 받으며(Diener, Shu, Lucas, & Smith, 1999) 특히 내적요인인 성격은 기질적인 측면이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McCare & Cota, 1991). 본 연구주제인 아유르베다(Ayurveda)에서는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개인 모두에게 존재하며 인간은 스스로를 치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아유르베다가 추구하는 이상적 방향은 창조와 연관된 생명 자체 안에 본래 내재한 에너지의 모든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유르베다(Ayurveda)는 다른 의학 체계들을 위한 모범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생명 자체에 비견될 만큼 오래된 전통이다 (Frawley David, 2008).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5천년 역사를 가진 인도 대체의학인 아유르베다철학과 이론의 체계화를 통하여 한국 사람들의 성격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자신의 인식하고 이를 통해 심신의 균형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위에서 기술한 연구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둘째, 전국적인 표집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사람들의 체질에 따른 심리유형과 생활습관을 정리하고 이해하며

셋째,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된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를 개발한다.

#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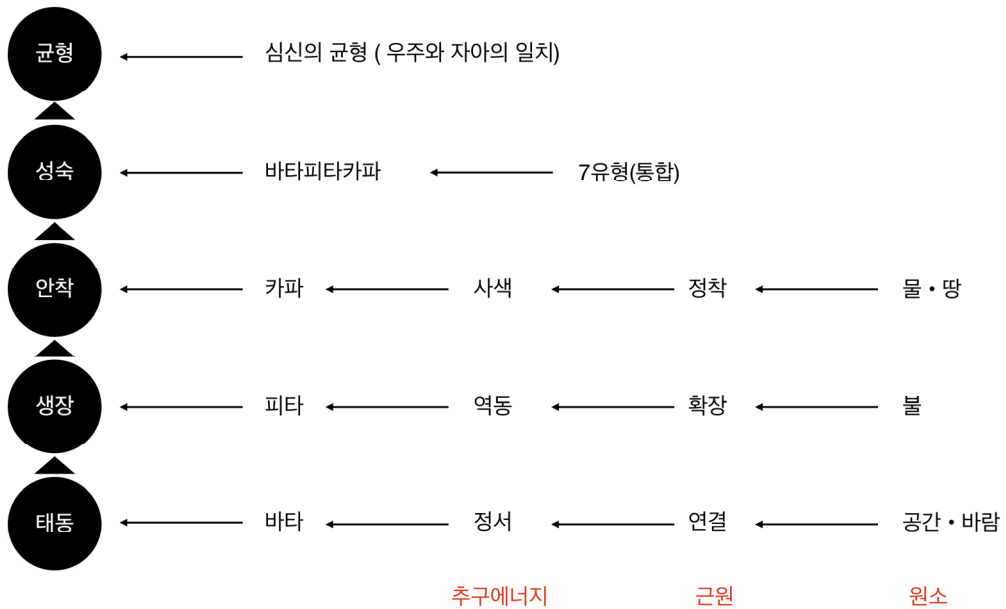
## 1. 한국형아유르베다

아유르베다는 5천년의 역사를 통해 체계화된 인도의 전통의학으로 ‘아유르베다(Ayurveda)’는 삶, 생활을 뜻하는 ‘아유(Ayu)’와 앎 또는 지혜, 과학을 의미하는 ‘베다(Veda)’가 합쳐져

삶의 지혜, 생활의 과학을 뜻한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인간을 소우주라고 여기며 인간의 대우주 자식이고 대우주와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범아일여(梵我一如)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아유르베다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은 인간은 우주의 근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육체에 갇힌 제한적 존재가 아니며,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자신의 참된 자아를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아유르베다의 본질의 추구 목적을 바탕으로 윤천성교수는 한국형아유르베다 교육훈련체계를 설계하였다. 단계적 설계는 태동을 시작으로 성장, 안착, 성숙을 통해 최종 우주와 자아의 일치를 이루는 균형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한국형아유르베다 교육훈련체계<sup>1)</sup>는 다음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윤천성교수의 한국형아유르베다 교육훈련체계

출처: 한국형아유르베다 VATA과정 교재(윤천성, 2017)

또한 한국형아유르베다 교육훈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표 1과 같은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 단계별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개발하였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인간을 소우주로 주장하였으며, 자연과 인간의 5대 원소인 공간(空,

1) 한국형아유르베다 교육훈련체계는 윤천성교수(2016)에 의해 창시되었다. 한국형아유르베다 교육훈련체계는 한국형아유르베다 형성체계와 인간의 성장체계를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형아유르베다 교육훈련체계는 태동에서 시작되어 성장, 안착, 성숙, 균형의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의 목표인 심신의 균형을 이루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한국형아유르베다 교육과정 단계 및 내용<sup>1)</sup>

단계	주요 개념 및 내용	교육시간 / 자격
VATA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형아유르베다 교육훈련체계 및 바타 본질</li> <li>아유르베다 개요 및 역사</li> <li>한국형아유르베다 5원소</li> <li>한국형아유르베다 기본심리유형</li> </ul>	9시간 (1일)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 검사자격
PITTA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형아유르베다 피타 본질과 7유형</li> <li>한국형아유르베다 균형유형(대칭유형)</li> <li>한국형아유르베다와 차크라</li> <li>7유형 사례 분석</li> </ul>	9시간 (1일)
KAPHA 나는 어디에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형아유르베다 카파 본질과 성장유형</li> <li>한국형아유르베다와 5원소 심화와 명상</li> <li>한국형아유르베다와 인간관계</li> <li>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별 상담기법</li> </ul>	9시간 (1일) 한국형아유르베다 전문자격
7유형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형아유르베다 다각적 관점</li> <li>한국형아유르베다와 심리학</li> <li>한국형아유르베다와 체질학</li> <li>한국형아유르베다 활용한 프로그램 이해</li> </ul>	16시간 (1박 2일)
균형 심신의 균형 자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형아유르베다 교육과정 균형적 접근</li> <li>한국형아유르베다 7유형 심화훈련</li> <li>한국형아유르베다 균형훈련 방법 이해</li> <li>자신의 심리유형 본질 탐색과 통합</li> </ul>	32시간 (2박 3일)

출처: 한국형아유르베다 VATA과정 교재(윤천성, 2017)

akasha), 바람(風, vayu), 불(火, tejas), 물(水, jala), 땅(地, prthivi)을 기반으로 구성된 특질에 따라 바타(vata), 피타(pitta), 카파(kapha)의 세 가지 특질로 구분하였다(윤천성, 2017). 이상의 세 가지 특질은 사람의 체형과 체질로 구분하며 성격적 특질까지 설명해 주고 있다. 인간은 공간(Ether), 바람(Vayu), 불(Tejas), 물(Gala), 땅(Prithvi)의 5원소를 가지고 있다. 한국형아유르베다의 5원소의 개념과 기본 속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한국형아유르베다의 5원소의 개념과 기본 속성

요소	개념	감각기능(감각기)	기본 속성
공간	연결, 자기표현	청각(귀)	미세한 소리, 저항과 경계없이 가볍게
바람	미세한 움직임, 변화	촉각(피부)	압박감, 한랭감, 거침, 건조함
불	빛, 지각과 이동	시각(눈)	불, 빛, 활동성, 깨끗함, 신랄함
물	유동성, 삶	미각(혀)	액체, 한랭감, 점착성, 부드러움
땅	견고함, 저항	후각(코)	고무, 무거움, 견고함, 느낌, 정지

출처: 김영규. 윤천성(2006), 국내 아유르베다 연구에 관한 석·박사학위논문 동향분석을 바탕으로 재구성

## 2. 한국형아유르베다 기본심리유형

윤천성(2017) 교수는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을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아유르베다의 5원소 조합을 토대로 하여 한국형아유르베다 기본심리유형<sup>2)</sup>으로 하였다. 한국형아유르베다 기본심리유형은 5원소의 특이성에 따라 공간과 바람의 조합인 바타형(Vata)을 ‘관계형’으로, 불인 피타형(Pitta)을 ‘성장형’으로, 물과 땅의 조합인 카파형(Kapha)을 ‘안정형’으로 하여 개인의 내면에 근원적 기질을 기본심리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기본심리유형의 의미는 스트레스를 약화하게 하고 안정을 유지할 때 가장 상승된 에너지 유형으로 표현되어지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며 이는 태도에 영향을 주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세 가지는 인체의 기능 체계로서 작용을 하는데, 바타(Vata)는 체내의 모든 이동(이화작용)을, 피타(Pitta)는 모든 변형(변화작용)을, 그리고 카파(Kapha)는 모든 포용(동화작용)을 주관한다. 기본심리유형인 바타형(V, 관계형), 피타형(P, 성장형), 카파형(K, 안정형)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바타형(V, 관계형)

바타형(V, 관계형)은 공간과 바람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바타(Vata)는 산스크리트어로 ‘움직인다’ ‘냄새 맡다’는 어원이 있다. 공간·바람은 타인 또는 대상과 연결하려는 성향을 지니며 정서적 에너지로 표출된다. 공간을 순환하며 움직이는 바람처럼 바타형은 지속적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지닌다.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며 즐기는 이들은 타인과의 정서적인 교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폭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자 타인과 지속적으로 연결하려고 한다. 불안정한 마음은 생명력을 분산시키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그들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다. 아동기의 방치나 학대 역시 바타형의 심리적 혼란의 원인이 된다(윤천성, 2017).

### 2) 피타형(P, 성장형)

피타형(P, 성장형)은 불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피타(pitta)는 산스크리트어로 ‘집중’과 ‘열’을 뜻하는 타프(Tap)에서 파생했다. 피타형은 자기와 대상을 확장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역동적 에너지로 표출된다. 추구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는 것을 하기 보다 먼저 행동으로 뛰어드는 열성적 경향이 있다. 피타형의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표출될 때는 활기차고, 관대하고, 자신감 있고, 창의적 자기표현을 하지만 불안정적으로 표출될 때는 자기과시, 교만함, 오만함, 특별한 존재가 되려는 갈구를 하며 심리적 이상은 과도한 공격성과 적의에서 기인한다. 어린 시절에 지나

2) 한국형아유르베다 기본심리유형은 세 도샤를 바타형, 피타형, 카파형으로 명하고 한국형 별칭을 관계형, 성장형, 안정형으로 명한 한국형아유르베다 용어이다.

치게 경쟁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과도한 갈등의 경험은 부수적인 요소들이다(윤천성, 2017).

### 3) 카파형(K, 안정형)

카파(K, 안정형)는 물과 땅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카파(Kapha) 또는 슬레스마(Sleshma)는 함께 묶이게 되는데, 산스크리트어로 슬레스마(Sleshma)의 어원은 ‘포용’을 뜻하는 ‘Slish’이다. 여유 있게 흘러가는 물과 땅의 견고함이 심리적 특이성으로 잘 표현된다. 카파형은 대상으로부터 자신의 범위 안에 정착하게 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사색적 에너지로 표출된다. 카파형은 물과 땅의 요소는 사람들이 유연하고 높은 인내력이 있으며 사려 깊고 조심스러움과 잘 변화하지 않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이성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안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리적 이상은 타인이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으로 사로잡히고 추상적 사고로 새로운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타인에게 보호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의존적 모습을 보인다(윤천성,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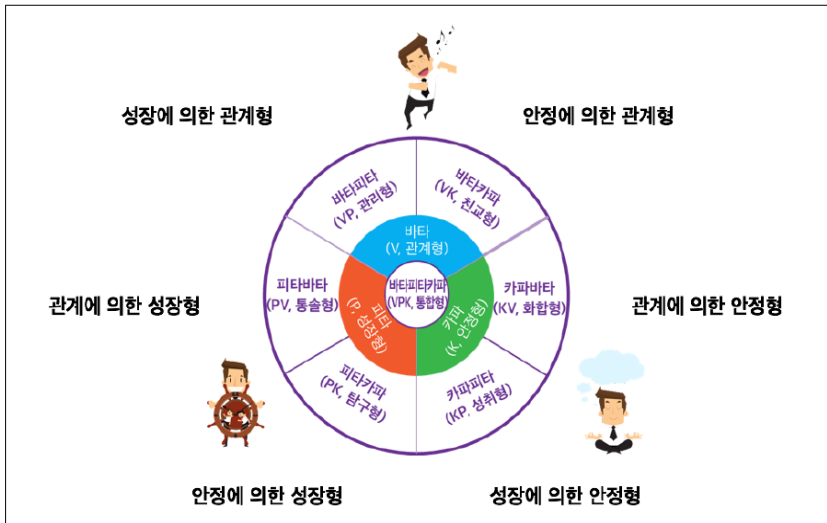
<표 3>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

유형	바타형(V, 성장형)		피타형(P, 성장형)		카파형(K, 안정형)	
근원	연결		확장		정착	
에너지	정서		역동		사색	
5원소	공간·바람		불		물·땅	
상징	달		태양		별	
인체기능	이동(이화작용)		변형(변화작용)		포용(동화작용)	
성질	가벼움, 불규칙, 시원함, 건조함, 미세함, 맑음		더움, 예리함, 기름진, 뜨거움, 가동성, 액성		무거움, 점성, 안정성, 느림, 견고함, 고요함	
언어	빠른 말투, 말을 많이 함		논쟁적, 따지기 좋아함		말의 속도 느림, 조화	
특징	움직임이 분주하며, 호기심이 강함		논리적이며, 자기주장적		보수적이며, 잘 동요되지 않음	
강점	적응력, 공감력		주도성, 열정적		인내심, 신뢰감	
약점	산만함, 미결단		독선적, 공격성		집착함, 의존성	
7유형	바타피타 (관리형) VP	바타카파 (친교형) VK	피타바타 (통솔형) PV	피타카파 (탐구형) PK	카파바타 (화합형) KV	카파피타 (성취형) VP
균형 유형	카파피타 (성취형) KP	피타카파 (탐구형) PK	카파바타 (화합형) KV	바타카파 (친교형) VK	피타바타 (통솔형) PV	바타피타 (성취형) VP

출처: 한국형아유르베다 VATA과정 교재(윤천성, 2017)

### 3. 한국형아유르베다 7유형

한국형아유르베다 7유형은 바타형(V, 관리형), 피타형(P, 성장형), 카파형(K, 안정형)를 토대로 하고 있다.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를 한 피검자의 결과에서 드러나는 1차 도샤와 2차 도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7유형은 한국형아유르베다 기본심리유형인 바타형(V, 관리형), 피타형(P, 성장형), 카파형(K, 안정형)의 조합이 1차 도샤와 2차 도샤가 되는 바타피타형(VP, 관리형), 바타카파형(VK, 친교형), 피타바타형(PV, 통솔형), 피타카파형(PK, 탐구형), 카파바타형(KV, 화합형), 카파피타형(KP, 성취형), 바타피타카파(VPK, 통합형)이 있다. 각 유형에서 1차 도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차도샤를 수단으로 활용한다. 7유형은 그림 2와 같다(윤천성,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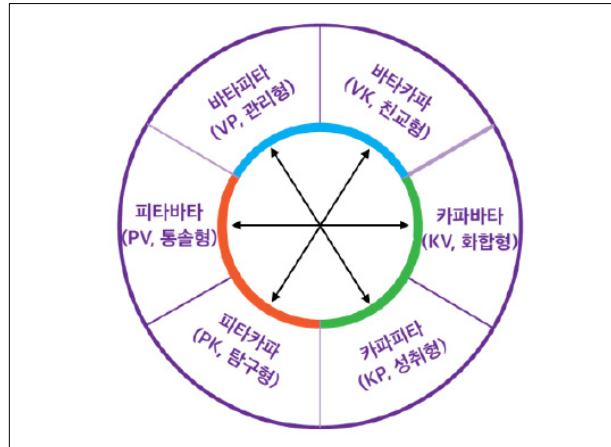
<그림 2> 한국형아유르베다 7유형

출처: 한국형아유르베다 VATA과정 교재(윤천성, 2017)

### 4. 한국형아유르베다 균형유형

아유르베다는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바타, 피타, 카파의 세 가지 기질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형아유르베다에서는 바타, 피타, 카파 세기질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3차 도샤를 1차 도샤로 하고 2차 도샤가 동일한 에너지의 유형을 균형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균형유형의 방향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부족한 기질을 채우기 위한 방향을 의미한다(윤천성, 2017). 바타에 근원을 둔 바타피타형(VP, 관리형)의 경우에는 카파피타형(KP, 성취형)이다. 바타카파형(VK, 친교형)의 경우에는 피타카파형(PK, 탐구형)이다. 피타에 근원을 둔 피타바타형(PV, 통솔형)의 경우에는 피타카파형(PK, 탐구형)이다. 피타카파

형(PK, 탐구형)의 경우에는 비타카파형(VK, 친교형)이다. 카파에 근원을 둔 카파바타형(KV, 화합형)의 경우에는 피타바타형(PV, 통솔형)이다. 카파피타형(KP, 성취형)의 경우에는 바타피타형(VP, 관리형)이다. 균형유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한국형아유르베다 균형유형

출처: 한국형아유르베다 VATA과정 교재(윤천성, 2017)

## 5. 한국형아유르베다 관련 연구

아유르베다에 관한 연구는 1997년 한의학에서 처음으로 연구되었고 이후 미용학(향장학, 미용보건, 미용예술), 한의학(대체의학, 수기치료, 자연치유, 제3의학), 요가학, 교육학, 의상학, 식품영양학, 철학, 신학, 생물학,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김영규, 윤천성; 2016). 한국형아유르베다 관련 연구는 윤천성교수가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한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척도(KAPTI) 타당성 연구(2017)’를 시작으로 이홍숙박사(2017)는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를 통한 대상자의 상담사례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심신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아유르베다와 관련된 연구는 목적에 따라 아래 표 4로 정리되었다.



〈표 4〉 연구목적에 따른 국내 아유르베다 연구동향

대분류	중분류	연구목적
이론적 접근	아유르베다 이해	심리적 접근, 의학적 접근, 체질론 탐구, 유형론 탐구, 고찰, 번역
	아유르베다 분석	식이요법, 색채심리, 보석처방, 마사지, 체형별 건강관리(실버세대)
실천적 접근 (효과 및 활용)	건강과 미용	체중관리, 두피, 모발, 피부관리, 노화, 면역, 체질개선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효과
	정신건강	스트레스, 우울, 무력감, 중독
	상담과 심리	자아존중감, 공격성, 노년기 심리, 주의집중
	선호도 및 만족도	선호도, 만족도

출처: 김영규, 윤천성(2016), 국내 아유르베다 연구에 관한 석·박사학위논문 동향분석

###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척도 타당성 연구(윤천성, 2017)를 통해 개발된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를 표준화하기 위해 유형(도사)별 각 2문항을 추가하여 설계된 설문지를 전국적으로 2000부를 배부하여 유효 설문 1003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1003명을 대상으로 본 최종 척도인 45개 문항에 대해 206명을 대상으로 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표집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일반적 특성을 위한 빈도분석과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은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분석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 심리유형, 체질특성, 생활습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Ⅳ.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다음 표 5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성 294명(29.3%), 여성 709명(70.7%)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20세 미만 46명(4.6%), 20-29세 522명(52.0%), 30-39세 177명(17.6%), 40-49세 141명(14.1%). 50

세 이상 117명(11.7%)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이하 32명(3.2%), 고졸 556명(55.4%), 전문대졸 120명(12.0%), 대졸 220명(21.9%), 대학원졸 75명(7.5%)으로 나타났고, 직업은 학생 531명(52.9%), 회사원 151명(15.1%), 전문기술직 82명(8.2%), 교육직 77명(7.7%), 주부 73명(7.3%), 공무원/전문직 54명(5.4%), 개인사업/자영업 11명(1.1%)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경상, 대구, 울산 385명(38.4%), 경기, 인천 265명(26.4%), 충청, 세종, 대전

<표 5>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성	294	29.3
	여성	709	70.7
연령대	20세 미만	46	4.6
	20-29세	522	52.0
	30-39세	177	17.6
	40-49세	141	14.1
	50세 이상	117	11.7
학력	중졸이하	32	3.2
	고졸	556	55.4
	전문대졸	120	12.0
	대졸	220	21.9
	대학원졸	75	7.5
직업	주부	73	7.3
	교육직	77	7.7
	회사원	151	15.1
	학생	531	52.9
	개인사업/자영업	11	1.1
	공무원/전문직	54	5.4
	전문기술직	82	8.2
	기타	24	2.4
거주지역	서울	76	7.6
	경기, 인천	265	26.4
	충청, 세종, 대전	156	15.6
	경상, 대구, 울산	385	38.4
	전라, 광주	87	8.7
	강원, 제주	34	3.4
전체	1003	100.0	

156명(15.6%), 전라, 광주 87명(8.7%), 서울 76명(7.6%), 강원, 제주 34명(3.4%) 순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대상자의 체질 및 생활습관

다음 표 6은 조사대상자의 체질 및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체질량지수(BMI)는 저체중 101명(10.1%), 정상 601명(59.9%), 과체중 155명(15.5%), 비만 146명(14.6%)으로 나타났고, 피부상태는 건조하고 거침 472명(47.1%), 윤기 있고 부드러운 428명(42.7%), 차고 매끄러운 103명(10.3%) 순으로 나타났다. 식욕상태는 대체로 일정함 432명(43.1%), 불규칙적 349명(34.8%), 강함 222명(22.1%)으로 나타났고, 선호하는 맛은 단맛 632명(63.0%), 매운 맛 499명(49.8%), 짠맛 393명(39.2%), 신맛 331명(33.0%), 쓴맛 87명(8.7%), 떫은 맛 46명(4.6%)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상태는 보통 수준 544명(54.2%), 불면(수면 시간이 짧고 잘 깨는 편) 262명(26.1%), 숙면(수면 시간이 길고 잘 깨지 않음) 197명(19.6%)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 이하 205명(20.4%), 6시간 323명(32.2%), 7시간 263명(26.2%), 8시간 이상 212명(21.1%)으로 나타났다.

질병은 없음 306명(30.5%), 호흡기질환 243명(24.2%), 비만 225명(22.4%), 피부질환과 부종이 각 143명(14.3%), 염증 110명(11.0%), 관절염 62명(6.2%), 신경계 질환 54명(5.4%), 천식 46명(4.6%), 발열 42명(4.2%), 감염 11명(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체질 및 생활습관

구분		빈도(N)	퍼센트(%)
체질량지수(BMI)	저체중	101	10.1
	정상	601	59.9
	과체중	155	15.5
	비만	146	14.6
피부상태	건조하고 거침	472	47.1
	윤기 있고 부드러운	428	42.7
	차고 매끄러운	103	10.3
식욕상태	불규칙적	349	34.8
	강함	222	22.1
	대체로 일정함	432	43.1
선호하는 맛 (다중응답)	단맛	632	63.0
	신맛	331	33.0
	짠맛	393	39.2
	쓴맛	87	8.7
	떫은 맛	46	4.6
	매운 맛	499	49.8
	기타	66	6.6
수면상태	불면	262	26.1
	보통 수준	544	54.2
	숙면	197	19.6
평균 수면시간	5시간 이하	205	20.4
	6시간	323	32.2
	7시간	263	26.2
	8시간 이상	212	21.1
질병 (다중응답)	신경계 질환	54	5.4
	관절염	62	6.2
	발열	42	4.2
	감염	11	1.1
	염증	110	11.0
	피부질환	143	14.3
	호흡기질환	243	24.2
	천식	46	4.6
	부종	143	14.3
	비만	225	22.4
	기타	130	13.0
	없음	306	30.5
전체		1003	100.0

## 2. 척도의 신뢰도 검증

신뢰성이란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의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Nunnally, 1978).

다음 표 7에서 각 기본심리유형 척도 유형별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바타형’은 0.950 ‘피타형’은 0.926, ‘카파형’은 0.946으로 나타났다.

<표 7> 척도의 신뢰도 검증

구분	요인	항목수	신뢰도 계수
기본심리유형	바타형	15	.950
	피타형	15	.926
	카파형	15	.946

## 3. 척도의 타당성 검증

### 1)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의 요인추출은 주성분 추출방법을 이용하였고, 요인회전방법은 직교회전 방식인 Varimax 회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시 요인 적재량이 0.5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내 그룹화가 되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 하나의 요인으로 지정하였다(Hair et al., 2010).

요인분석 방법은 각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야하는데 KMO(Kaise-Mayer-Olkin)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상관행렬을 확인함으로써 사용 항목들이 적합한가를 나타내주는 방법으로 이 측도의 값이 작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보통 KMO값이 .90이상이면 아주 좋은 것이고 .50이하이면 변수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 표 8은 기본심리유형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34344.849(p=0.000)$ 이므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0.940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이 3개의 요인 적재값이  $\pm 0.4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기본심리유형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성분		
	바타형	카파형	피타형
1.1. 나는 감정의 변화가 심한 편이다.	.913	-.122	-.013
1.15. 나는 때때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865	.057	-.237
1.17. 나는 한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다.	.819	-.088	-.177
1.5.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중간에 끼어든 경험이 있다.	.783	-.120	.048
1.3. 나는 종종 고민에 빠진다.	.780	.092	-.112
1.19. 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편이다.	.769	-.078	.206
1.14. 나는 이해력은 빠르나 잘 잊는 편이다.	.757	-.044	-.013
1.11. 나는 반복되는 일에 쉽게 실증을 느낀다.	.753	-.022	-.138
1.10. 나는 쉽게 피곤함을 느낀다.	.745	.121	-.195
1.4. 나는 규칙에 얽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739	-.140	.034
1.16. 나는 해야 할 일을 잊어 곤란한 경험이 있다.	.725	.078	-.301
1.18. 나는 충동적으로 구매할 경험이 있다.	.715	.011	-.170
1.8. 나는 변화하는 일상을 선호하는 편이다.	.697	-.205	.206
1.9. 나는 다양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	.692	-.098	.217
1.12. 나는 대체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편이다.	.672	-.061	.230
3.7.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맞춰주는 편이다.	-.015	.884	-.051
3.12. 나는 안정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009	.875	.013
3.3. 나는 시작한 일은 꾸준히 마무리하는 편이다.	-.086	.798	.140
3.15.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상황을 만들지 않는 편이다.	-.042	.759	.069
3.8. 나는 변화를 선호하지 않는다.	.023	.759	-.138
3.6. 나는 반복된 일을 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033	.754	-.078
3.2. 나는 느긋하게 현재 상황을 즐긴다.	-.180	.743	.109
3.13. 나는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오랫동안 기억하는 편이다.	.027	.734	.027
3.4.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식하는 편이다.	.128	.731	.043
3.17.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편이다.	-.060	.725	.093
3.9. 나는 한 가지 생각을 깊게 오래하는 편이다.	.108	.724	.024
3.18. 내가 행동하기 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008	.722	.033
3.5. 나는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는 편이다.	-.096	.721	-.062
3.19. 나는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이다.	-.230	.715	-.024
3.1. 나는 안정적이며 감정의 동요가 적은 편이다.	-.360	.649	.118
2.2. 내가 결정한 것은 결단력 있게 추진하는 편이다.	.030	.003	.861
2.14. 나는 상황을 통제하는 것을 선호한다.	.011	-.005	.811
2.6. 나는 기억력이 명확한 편이다.	-.082	.061	.766
2.17. 나는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004	-.022	.764

구분	성분		
	바타형	카파형	피타형
2.15. 나는 자존심이 강하다.	.116	-.006	.761
2.16.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을 싫어한다.	.139	-.039	.749
2.4. 나는 다른 사람과 종종 논쟁하곤 한다.	.149	-.088	.747
2.18. 내가 시작한 일은 완벽히 마무리하는 편이다.	-.066	.119	.738
2.13. 나는 주도적으로 행동한다.	-.030	-.039	.693
2.1. 나는 내 주장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편이다.	.156	-.155	.623
2.12. 나는 예리한 변별력을 지니고 있다.	-.175	.116	.623
2.10. 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편이다.	-.100	.063	.613
2.11. 나는 삶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편이다.	-.167	.098	.607
2.7. 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편이다.	-.164	.180	.601
2.5. 나는 논리적이고 조리있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113	-.001	.601
고유값	9.223	8.820	8.094
분산설명(%)	20.495	19.601	17.987
누적설명(%)	20.495	40.096	58.083

KMO =0.940, Bartlett's test결과  $\chi^2=34344.849$  (df=990, p=0.000)

## 2) 문항 전체 상관관계에 의한 문항 분석

다음 표 9는 기본심리유형 척도별 각각 15개 문항에 대한 문항 전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문항 전체 상관관계는 문항의 변별력을 반영해 주는 지표로서,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태도 조사 연구와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문항 분석 기법이다. 기본심리유형 척도별로 문항 전체 상관계수가 0.30 이상인 문항을 분석한 결과 각 유형별로 문항 1~15번 모두 전체 상관계수가 0.3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9> 문항 전체 상관관계에 의한 문항 분석

문항구성	기본심리유형		
	바타형	피타형	카파형
문항 1	.920***	.627***	.686***
문항 2	.776***	.846***	.760***
문항 3	.745***	.740***	.800***
문항 4	.785***	.632***	.728***
문항 5	.708***	.759***	.718***
문항 6	.690***	.634***	.748***
문항 7	.743***	.639***	.875***
문항 8	.756***	.625***	.750***
문항 9	.673***	.654***	.718***
문항 10	.759***	.709***	.880***
문항 11	.870***	.801***	.740***
문항 12	.728***	.745***	.764***
문항 13	.828***	.727***	.723***
문항 14	.721***	.744***	.716***
문항 15	.767***	.730***	.735***

\*\*\* p<.001

#### 4. 기본심리유형 척도 분포

##### 1) 전반적인 기본심리유형 척도

다음 표 10은 전반적인 기본심리유형 척도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카파형’이 493명(4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바타형’ 298명(29.7), ‘피타형’ 212명(2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기본심리유형 척도별 분포도

구분	요인	빈도(N)	퍼센트(%)
기본심리유형	바타형	298	29.7
	피타형	212	21.1
	카파형	493	49.2
전체		1003	100.0



##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리유형 척도 차이

다음 표 11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한국형아우르베다 기본심리유형별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대, 학력,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1$ ).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카파형이나 피타형이 많

<표 1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리유형 척도 차이

구분		기본심리유형			$\chi^2$ (p)
		바타형	피타형	카파형	
성별	남성	61(20.7)	70(23.8)	163(55.4)	15.998*** (.000)
	여성	237(33.4)	142(20.0)	330(46.5)	
연령대	20세 미만	16(34.8)	5(10.9)	25(54.3)	55.789*** (.000)
	20-29세	193(37.0)	93(17.8)	236(45.2)	
	30-39세	50(28.2)	53(29.9)	74(41.8)	
	40-49세	24(17.0)	38(27.0)	79(56.0)	
	50세 이상	15(12.8)	23(19.7)	79(67.5)	
학력	중졸이하	8(25.0)	4(12.5)	20(62.5)	27.180** (.001)
	고졸	188(33.8)	95(17.1)	273(49.1)	
	전문대졸	38(31.7)	33(27.5)	49(40.8)	
	대졸	48(21.8)	63(28.6)	109(49.5)	
	대학원졸	16(21.3)	17(22.7)	42(56.0)	
직업	주부	20(27.4)	12(16.4)	41(56.2)	47.880*** (.000)
	교육직	15(19.5)	20(26.0)	42(54.5)	
	회사원	25(16.6)	38(25.2)	88(58.3)	
	학생	189(35.6)	92(17.3)	250(47.1)	
	개인사업/자영업	3(27.3)	4(36.4)	4(36.4)	
	공무원/전문직	17(31.5)	9(16.7)	28(51.9)	
	전문기술직	23(28.0)	32(39.0)	27(32.9)	
	기타	6(25.0)	5(20.8)	13(54.2)	
거주지역	서울	25(32.9)	18(23.7)	33(43.4)	17.063 (.073)
	경기, 인천	82(30.9)	53(20.0)	130(49.1)	
	충청, 세종, 대전	47(30.1)	28(17.9)	81(51.9)	
	경상, 대구, 울산	96(24.9)	93(24.2)	196(50.9)	
	전라, 광주	39(44.8)	13(14.9)	35(40.2)	
	강원, 제주	9(26.5)	7(20.6)	18(52.9)	
전체		298(29.7)	212(21.1)	493(49.2)	

\*\* p<.01, \*\*\* p<.001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카파형이나 바타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연령대에 따라서는 20세 미만이나 20-29세의 경우 카파형이나 바타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의 경우 카파형이나 피타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졸 이하의 경우 카파형이나 바타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졸이상의 경우 카파형이나 피타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직업에 따라서는 주부, 교육직, 회사원, 학생, 공무원/전문직의 경우 카파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사업/자영업의 경우 카파형이나 피타형이 많은 것으로, 전문기술직의 경우 피타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 외에 거주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

### 3) 기본심리유형 척도에 따른 체질 및 생활습관 차이

다음 표 12는 기본심리유형 척도에 따라 체질 및 생활습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체질량지수(BMI), 피부상태, 식욕상태, 수면상태, 평균 수면시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01$ ). 먼저 체질량지수(BMI)에 있어서는 각 유형 모두 정상이 50% 이상으로 많았으나 이 외에 바타형의 경우 저체중이, 피타형의 경우 과체중이, 카파형의 경우 비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피부상태에 있어서는 바타형이나 카파형의 경우 건조하고 거친 피부상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타형의 경우 윤기 있고 부드러운 피부상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식욕상태에 있어서는 바타형의 경우 불규칙적이라고 하였으나 피타유형이나 카파형의 경우 대체로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면상태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각 유형 모두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수면시간에 있어서는 바타형의 경우 6시간 또는 8시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피타형이나 카파형의 경우 6-7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 외에 선호하는 맛에 있어서는 각 유형 모두 단맛이나 매운 맛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질병에 있어서는 카파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질병이 없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

<표 12> 기본심리유형 척도에 따른 체질 및 생활습관 차이

구분		기본심리유형			$\chi^2$ (p)
		바타형	피타형	카파형	
체질량지수 (BMI)	저체중	43(14.4)	10(4.7)	48(9.7)	18.668** (.005)
	정상	179(60.1)	129(60.8)	293(59.4)	
	과체중	38(12.8)	44(20.8)	73(14.8)	
	비만	38(12.8)	29(13.7)	79(16.0)	

구분		기본심리유형			$\chi^2$ (p)
		바타형	피타형	카파형	
피부상태	건조하고 거침	158(53.0)	81(38.2)	233(47.3)	14.533** (.006)
	윤기 있고 부드러운	117(39.3)	110(51.9)	201(40.8)	
	차고 매끄러운	23(7.7)	21(9.9)	59(12.0)	
식욕상태	불규칙적	131(44.0)	50(23.6)	168(34.1)	76.160*** (.000)
	강함	97(32.6)	45(21.2)	80(16.2)	
	대체로 일정함	70(23.5)	117(55.2)	245(49.7)	
선호하는 맛 (다중응답)	단맛	191(64.1)	112(52.8)	329(66.7)	-
	신맛	99(33.2)	75(35.4)	157(31.8)	
	짠맛	146(49.0)	75(35.4)	172(34.9)	
	쓴맛	13(4.4)	28(13.2)	46(9.3)	
	뽀은 맛	9(3.0)	17(8.0)	20(4.1)	
	매운 맛	158(53.0)	111(52.4)	230(46.7)	
	기타	20(6.7)	10(4.7)	36(7.3)	
수면상태	불면	99(33.2)	54(25.5)	109(22.1)	20.048*** (.000)
	보통 수준	131(44.0)	124(58.5)	289(58.6)	
	숙면	68(22.8)	34(16.0)	95(19.3)	
평균 수면시간	5시간 이하	74(24.8)	46(21.7)	85(17.2)	18.634** (.005)
	6시간	86(28.9)	66(31.1)	171(34.7)	
	7시간	60(20.1)	61(28.8)	142(28.8)	
	8시간 이상	78(26.2)	39(18.4)	95(19.3)	
질병 (다중응답)	신경계 질환	16(5.4)	13(6.1)	25(5.1)	-
	관절염	23(7.7)	10(4.7)	29(5.9)	
	발열	16(5.4)	11(5.2)	15(3.0)	
	감염	6(2.0)	3(1.4)	2(4)	
	염증	38(12.8)	30(14.2)	42(8.5)	
	피부질환	43(14.4)	28(13.2)	72(14.6)	
	호흡기질환	81(27.2)	63(29.7)	99(20.1)	
	천식	12(4.0)	18(8.5)	16(3.2)	
	부종	47(15.8)	41(19.3)	55(11.2)	
	비만	80(26.8)	45(21.2)	100(20.3)	
	기타	40(13.4)	30(14.2)	60(12.2)	
	없음	81(27.2)	56(26.4)	169(34.3)	
전체		298(100.0)	212(100.0)	493(100.0)	

\*\* p<.01, \*\*\* p<.001

났으며, 이 외에 가장 많은 질병으로는 카파형의 경우 비만이, 바타형이나 피타형의 경우 호흡기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 5. 척도의 재검사 신뢰도 검증

다음 표 13은 총 1003명을 대상으로 본 최종 척도인 45개 문항에 대해 206명을 대상으로 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각 유형별 살펴보면 신뢰도 계수와 재검사 신뢰도 계수 모두 0.80 이상의 높은 재검사 신뢰도를 나타내어 본 척도가 일관성 있게 해당 특성들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나타낸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3〉 척도의 재검사 신뢰도 검증

구분	요인	항목수	신뢰도 계수	재검사 신뢰도 계수
기본심리유형	바타형	15	.950	.886
	피타형	15	.926	.870
	카파형	15	.946	.862

##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 이론을 정립하고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표집을 분석하여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를 표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를 표준화하기 위해 유형(도샤)별 각 15문항으로 설계된 설문지를 전국적으로 2000부를 배부하여 유효 설문 1003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1003명을 대상으로 본 최종 척도인 45개 문항에 대해 206명을 대상으로 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카파형’이 493명(4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바타형’ 298명(29.7), ‘피타형’ 212명(21.1%) 순으로 나타났고 각 기본심리유형척도 유형별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바타형’은 0.950, ‘피타형’은 0.926, ‘카파형’은 0.946으로 나타났다. 1003명을 대상으로 본 최종 척도인 45개 문항에 대해 206명을 대상으로 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바타형’은 0.886, ‘피타형’은 0.870, ‘카파형’은 0.862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가치와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활용된 표집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남, 대구, 울산, 경상, 강원, 제주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 될 수 있는 검사 척도로 개발되었다는 것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둘째, 최종 척도인 45개 문항에 대해 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바타형'은 0.886 '피타형'은 0.870, '카파형'은 0.862 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 검증된 척도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신뢰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개발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가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표준화되어 개발된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KAPTI)를 활용하여 심리학, 미용학(향장학, 미용보건, 미용예술), 한의학(대체의학, 수기치료, 자연치유, 제3의학), 요가학, 교육학, 의상학, 식품영양학, 철학, 신학, 생물학,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계미량(2009). 아유르베다에서 보는 몸과 마음의 상관성 연구: Caraka Samhita의 Sarirasthanam 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김가빈(2012). 인간체질에 따른 보석치방법 비교 연구: 베다 점성학, 아유르베다, 음양오행 이론 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김덕곤(2005). 한국한의학과 인도전통의학의 비교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6(2). 대한한의학회. 201-216.
- 김문선(2009). 여대생의 아유르베다의 바타 체질과 사상체질의 소음인 체질 조사 분석, 석사학 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민채(2016). 여성의 아유르베다 체질과 비만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 학교.
- 김민채 · 유은주 · 윤천성(2015). 아유르베다 의학의 도사에 따른 건강관리의 고찰. 뷰티산업연 구. 9(1). 한국뷰티산업학회. 95-108.
- 김순분(2007). 아유르베딕 요가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비만아동의 비만도 및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김승희(2011). 아유르베다와 사상의학의 비교연구: 체질에 따른 치료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 문, 동국대학교.
- 김연태(2014). 아유르베다와 한의학의 양생론 비교 고찰, 석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 김영규 · 윤천성(2016). 국내 아유르베다 연구에 관한 석 · 박사학위논문 동향분석. 평생교육리 더십연구. 3(2). 한국평생교육리더십학회. 5-24.
- 김영미(2009). 사상체질과 아유르베다 체질에 따른 피부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 김진희 · 한창현 · 안상우(2010). 아유르베다(Ayurveda)의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16(3). 한국한의학연구원. 1-13.
- 김현주 · 유은주 · 윤천성(2015). 아유르베다(Ayurveda)오일이 인체에 미치는 치료적 효과에 관 한 고찰. 뷰티산업연구. 9(1). 한국뷰티산업학회. 71-85.
- 김희경(2010). 아비얀가 아유르베다 테라피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유르베다 의 체질,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 류지혜(2008). 피부관리의 컬러테라피 적용에 관한 기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명대학교.
- 박종운(1997). 고대 인도 의학(AYURVEDA)의 형성과 체계,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배현지(2008). 아유르베다의 트리도샤와 한의학의 사상체질비교,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서경현 · 김정호 · 유제민(2009). 성격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 문제. 15(1). 한국심리학회. 169-186.

- 서지영(2007). 인도 전통의학에 관한 연구: 아유르베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서지영(2010). <수슈르따-상히따, 수트라스타나>의 편역을 통한 ‘아유르베다’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손은선·윤천성(2011). 미용요가의 탐색적 연구. 뷰티산업연구. 5(2). 한국뷰티산업학회. 45-65.
- 손은선·윤천성(2014). 뷰티요가 프로그램이 성인여성의 신체조성, 생리 및 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5(3).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69-81.
- 윤정현(2008). 아유르베다와 에니어그램의 성격유형 비교,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윤천성(2007). 에니어그램의 경영학적 접근. 에니어그램연구. 4(2). 한국에니어그램학회. 115-133.
- 윤천성(2012). 뷰티산업경영론. 훈민사.
- 윤천성(2015). 인간행동과 관계. 무역경영사.
- 윤천성(2017). 미용심리학. 훈민사.
- 윤천성(2017). 한국형아유르베다 VATA단계 교재. 한국아유르베다심리연구소.
- 윤천성(2017).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 검사지. 한국아유르베다심리연구소.
- 윤천성(2017).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 프로파일. 한국아유르베다심리연구소.
- 윤천성(2017).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척도(KAPTI) 타당성 연구. 평생교육리더십연구. 4(1). 한국평생교육리더십학회. 5-23.
- 윤천성(2018). 스타리더십 워크북. 휴마인드연구원.
- 윤천성·김미선(2008). 에니어그램에 근거한 어머니의 성격유형과 양육태도의 관계. 에니어그램연구. 5(1). 한국에니어그램학회. 9-36.
- 이거룡(2016). 아유르베다에서 아그니(Agni)의 의미에 대한 고찰. 남아시아연구. 22(2).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103-139.
- 이경숙(2008). Om Aim 만트라가 피타체질 중학생의 공격성 완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이두봉(2011). 실버세대를 위한 통합건강관리법 연구: 요가와 아유르베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이미나(2015). 아유르베다 요법을 활용한 숲태교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 이에영(2008). 도샤별 칼라치유의 가능성 탐색,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이영미(2004). 아유르베다의 트리도샤와 용의 심리적 유형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이인(2004). 짜끄라의 각성법에 관한 연구: 아유르베다 요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이호연(2007). 아유르베딕 아사나 프로그램이 여성의 도샤균형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이홍숙(2017).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를 통한 대상자의 상담사례 연구. 평생교육리더십연구. 4(2). 한국평생교육리더십학회. 27-54.

- 이홍숙·윤천성(2016). 성격특성(Big 5 Type)과 셀프리더십, 결혼만족도의 관계 연구. 인문사회21. 7(4). (사)아시아문화학술원. 523-546.
- 임주영(2011). 아우르베다의 3도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장현정(2011). 현대인의 중독에 대한 요가와 아우르베다 치유방법 고찰,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정미숙(2003). 아우르베다와 인본주의 심리학 비교,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정미숙(2006) 현대과학, 한의학, 아우르베다의 관점에서 본 웰빙 및 프로그램,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정은숙(2005). 아우르베다의 세 도샤별 식이요법의 효과에 대한 질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주말선(2007). Ram, Hrim 만트라가 바타체질 초등학생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최경화(2008). 아우르베다의 바타, 피타, 카파체질과 사상체질과의 연관성 연구: 사상체질과 성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최정명(2007). 아우르베다 오일이 모발과 두피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허선희·윤천성(2014). 에니어그램 유형에 따른 행동방식과 사상체질의 상관관계 연구. 뷰티산업연구. 8(1). 한국뷰티산업학회. 43-61.
- 황완희·윤천성(2016). 성격특성이 진로결정수준과 고용가능성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7(4). (사)아시아문화학술원. 493-522.
- 황지현(2011). 아우르베다식 프로그램 중 샷뜨바 다이어트와 체질유형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특징과 적용효과,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Diener, E., Shu, E., Lucas, R. E., & Smith, H. L.(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Seventh Edition.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 McCrae, R., & Costa, P. T.(1991). Adding Liebe und Arbeit: The full five-factor model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2), 227-232.
-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 Hil.



## ABSTRACT

#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Korean Ayurveda Psychology Type Indicator(KAPTI)

Youn, Chun-Sung\*

\*Professor, Dept. of Convergence Industry, Seoul Venture University  
(E-mail: staryoun@svu.ac.k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Korean Ayurveda Psychology Type theory based on the Indian medicine Ayurveda theory and to standardize the Korean Ayurveda Psychology Type Indicator by analyzing nationwide sampling of Korean people. In order to standardize the Korean Ayurveda Psychology Type Indicator developed through the Korean type Ayurveda psychology type scale feasibility study (Youn Chun Sung, 2017), 2000 questionnaires designed by adding 2 items to each type (Dosha) were distributed nationwide and valid questionnaire 1003 Respectively. The reliability of retest reliability was also analyzed for 206 questionnaires of 45 questions, which were the final scale of 1003.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493 persons (49.2%) had the highest level of 'kapha type', 298 (29.7) of 'Vata type' and 212 (21.1%) of 'Pitta type' 'Vata type' was 0.950, 'Pitta type' was 0.926 and 'Kapha type' was 0.946. The results of the retest reliability analysis of 206 respondents on the final scale of 100 items were as follows: Vata type 0.886, Pitta type 0.870, and Kapha type 0.862.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concluded tha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Ayurveda Psychology Type Indicator are secured and it can be utilized in various fields through the development of standardized tools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re-test reliability.

**Keywords :** Korean Ayurveda, Psychology Type Indicator, KAPTI, Standardization